

## 신장 공여 예정자에서 시행한 신장 조직 검사 소견과 이식신의 예후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<sup>1</sup>, 병리학교실<sup>2</sup>

윤혜은<sup>1</sup> · 김수현<sup>1</sup> · 김용균<sup>1</sup> · 최범순<sup>1</sup> · 최영진<sup>2</sup> · 양철우<sup>1</sup> · 김용수<sup>1</sup> · 김석영<sup>1</sup> · 최의진<sup>1</sup> · 장윤식<sup>1</sup> · 방병기

### Renal Biopsy Findings of Prospective Kidney Donors and Clinical Outcome of Renal Allograft

Hye Eun Yoon<sup>1</sup>, Su Hyun Kim<sup>1</sup>, Yong Kyun Kim<sup>1</sup>, Bum Soon Choi<sup>1</sup>, Yeong Jin Choi<sup>2</sup>  
Chul Woo Yang<sup>1</sup>, Yong Soo Kim<sup>1</sup>, Suk Young Kim<sup>1</sup>, Euy Jin Choi<sup>1</sup>, Yoon-Sik Chang<sup>1</sup>, Byung Kee Bang<sup>1</sup>

Department of<sup>1</sup> Internal Medicine, Department of<sup>2</sup> Pathology,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

**목 적** : 신장 공여 예정자에서 신장에 경한 이상소견 (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,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, 소량의 단백뇨 등)이 있는 경우 신장 공여자로서의 적합성 유무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지가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의 신장 조직 검사 결과 및 이식 후 예후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.

**방 법** : 신장 공여 예정자 검사로 신 조직 검사를 시행한 12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. 신 조직 검사를 시행한 임상적 적응증은 지속적인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 (8예, 66.7%), 사구체여과율의 감소 (2예, 16.7%), 소량의 요단백 (1예, 8.3%), 육안적 혈뇨의 과거력 (1예, 8.3%)순이었다. 환자들은 신 조직 검사 전 복부 초음파 및 경정맥 요로조영술을 시행하여 비뇨기과적 질환을 배제하였다.

**결 과** :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를 보였던 8예의 신 조직 검사 결과 비박형 사구체 기저막 질환 (Thin basement membrane disease, TBMD)이 5예 (62.5%)로 가장 많았고, IgA 신병증이 1예, Alport 증후군이 1예, 메산지움의 경한 확장이 1예이었다.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를 보였던 2예는 각각 IgA 신병증 및 세뇨관 간질성 병변이 확인되었다. 소량의 요단백을 보였던 1예는 동맥경화증이었고, 육안적 혈뇨의 과거력이 있었던 1예는 세뇨관 간질성 병변이었다. 전체 12명 중 4예 (33.3%)에서 신장이식을 시행하였다. 모두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를 보인 예로서, TBMD가 3예, 메산지움의 경한 확장이 1예이었다. 이 중 3예 (메산지움의 경한 확장 1예, TBMD 2예)에서 이식신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1예 (TBMD)에서 이식신 소실이 있었다. 그러나 이식신 소실은 급성거부반응에 의한 것으로 공여자의 신 조직 검사 결과와 무관하였다.

**결 론** : 신장 공여 예정자에서 혈뇨의 가장 흔한 원인은 비박형 사구체 기저막 질환이었다. 이들 이식 환자의 예후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